

[ 사회 ]

# 검찰 '가짜 학위' 대대적 수사 착수

## 해외 미인가 대학 학위 받은 100여명 명단 넘겨받아

검찰이 외국 미인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허위 학력 이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4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2002년 이후 해외 미인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1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곳은 대부분 김옥람(여·62) 동승아트센터 대표가 졸업한 퍼시픽 웨스턴대 등 '학위공

장'으로 알려진 미국 대학들이다. 검찰은 학술진흥재단에서 넘겨받은 명단에 나온 이들이 미인가 대학의 학력으로 국내 대학이나 기타 기관에 교수 등으로 부정하게 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미인가 외국 대학 졸업장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옥람씨를 소환조사했다. 단국대와 학술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허위학력 사실을 일부

확정한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궁했으며 김씨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고백한 대로 자신의 협의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월 8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르러 다음주 초 김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그간 저서 등에서 경기여중·고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녔으며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

를 졸업했다고 밝혀왔지만 경기여중·고와 이화여대에 김씨의 기록이 없고 퍼시픽 웨스턴대도 미인가 대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영화배우 장미희씨의 경우 임용시기가 1998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데다 재임용 과정에서도 학력 관련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소환 필요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허위학력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연예·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연남뉴스



조선대 8월 학위수여식 조선대 2007년 8월 학위수여식이 24일 대학 내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474명, 석사 182명, 박사 76명 등 총 732명이 학위를 받고 사회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檢 "靑 정책실장 '신정아 사건' 개입여부 조사"

## 변양균 실장 "신씨 부탁 받은적 없다"

신정아(여·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언론에 의해 제기된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의 신씨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 선정과 관련,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권력층 개입설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에는 '가짜 학위' 때문으로

동국대 교수에서 해임된 신정아씨 문제가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7월초, 변 실장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장 처음 제기했던 전 동국대 이사 장운성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히 있어 주면 잘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실장은 신씨와의 관계에 대해 "미술에 관심이 많아 전시회 등

에서 신씨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부탁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불차모임 '청불화' 회장인 변 실장은 "장운성 신씨과는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동국대 전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교직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갑수 전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은 24일 "변 실장은 내가 경제기획원 차관 재직 당시 초입과장이었을 뿐, 나에게 부탁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신씨의 감독 선정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화배우 신은경 결혼 4년만에 이혼

배우 신은경이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4일 신은경(34)씨의 소속사 오라클엔터테인먼트는 "그녀가 남편과 이혼에 합의,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합의조정 신청서를 냈으며 법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3년 9월 김정수 전 P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결혼해 1년 뒤 아들을 출산했다.

한편 신씨 부부는 지난 6월 남편 김씨가 회사돈 4억을 횡령하면서 신씨의 인감을 도용한 것이 불거지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연남뉴스



# 수시 2학기 전형 수능점수 반영 광주보건대 등 8개 전문대 시정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 2학기 전형 계획을 검토한 결과 광주보건대 등 8개 대학이 교육부 지침과 달리 전형 요소에 수능 점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등급)를 최종 합격조건으로만 활용하고 전형 요소로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긴 대학은 광주보건대·거제대·기동간호대·서강정보대·순천청암대·제주한라대·조선간호대·진주보건대 등 8곳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 "로스쿨 모집 총정원 최소 2,500명 돼야"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의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집 총정원은 최소 2천5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협의회는 "로스쿨 총정원은 기존의 고등교육법이나 이에 관계된 법을 서비스 시장구조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로스쿨 설치 후 변호사 배출 인원은 현재의 1.5배인 1천500명 수준이어야 하고 그걸려면 입학 정원은 최소 2천5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여러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방어적 논리에 매몰돼 로스쿨 정원이 정해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남뉴스

# 발해인들 개고기 즐겨 먹었다

발해인들이 개고기를 즐겼다는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제출됐다.

한국전통문화학회 조사단(단장 정석배)은 지난 6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연해주 우수리스크 북서쪽 체르나치노 유적을 러시아측과 공동 조사한 결과 육자와 발해 주거유적을 동시에 찾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발해시대 생활 폐기물을 버리던 곳에서 출토된 물고기 뼈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뼈를 분석

한 결과 돼지와 개 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석배 교수가 전했다.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사 역사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함께 한 이번 조사에서는 '체르나치노 2'로 명명된 곳에 대한 발굴에 주력한 결과 19세기 이후 한민이 거주한 흔적과 함께 발해 문화층과 육자·크로노브카 문화층이 차례로 확인됐다. /연남뉴스

### 생활 게시판

**부음**

- ▲김수복씨 별세 선곡·선명·선철·선용씨 부친상 윤창현·최재영씨 부부상=발인 25일(토)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09
- ▲오영순씨 별세 기영모·용기·영오·평순·성심씨 모친상 김민영씨 부모상=발인 25일(토) 조선대 장례식장 3분향소. 231-8903

#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자"

## 광주대, 부산서 학교발전 교직원 세미나



광주대(총장 김혁중)는 23~24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전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교직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대는 앞서 지난 5월 제 2차 학을 선포하고 개교 50주년인 오는 2030년 세계화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기 위한 'VISION 2030 추진단'을 구성, 5개 분야로 나눠 세부계획을 수립해왔다. 또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한국능력학회에 의뢰해 외부 환경 변화, 경영, 교육 등 대학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영진단 최종 보

고회, 비전수립 최종 보고회,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영진단 최종 보고회에서는 대학이 발전의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대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열린 비전수립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의 '취업·창업 중심대학'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명문대학'으로 슬로건을 바꾸고, 단기(2007~2010)·중기(2011~2020)·장기(2021~2030) 등 각 단계별로 수립한 추진 과제와 세부 추진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황태중기자 hwangtae@

### 분실

골프회원증 No. J01500088 광주C.C 정육관 삼기 회원증(대,소)을 분실공고함.

골프회원증 No. J01500089 광주C.C 이강욱 삼기 회원증(대,소)을 분실공고함.

---

### 분실공고

2006년도 기부금 영수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실공고합니다. 분실된 기부금 영수증 번호는 총계 774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1,2,7,37,38,241~390,501-573,636,721,741-906,1201-1265,1301-1450,1501-1550,1903-2007,2021-2027,2031)

2007년 8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시종무소

---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재옥(370925-1644310)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재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점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제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정흥지원 2007-단 80

공고인: 1.김미정 2.김동원 3.송현 4.송준 5.조미숙 6.조희리 7.조문주 (위 청구인 5,6,7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부 조영호, 친권자도 박명숙)

한정승인수리일: 2007. 8. 17.

공고기간: 2007. 8. 25 ~ 2007. 10. 24.

연락처: 서울 광진구 구자동 177-5 김미정(☎010-2276-0020)

### 사주학 초급 및 중급 수강생 모집 (제기)

- 교육과목: 사주초급(명리학), 중급(주역학)
- 개강일: 2007. 9. 1 (토) (4개월 / 매주 토요일 오전·오후)
- 접수일: 2007. 8. 1~8. 30(선착순 각 8명)
- 수강처: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219-20

**미래운명연구원**

문의전화: (032)676-4113 HP: 011-607-4113

###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본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 529-8111

**문제풀이** 실전(동형) 모의고사문제풀이(특수프린트물)  
과목별 전범위에 걸친 문제를 매일 풀면서 시간 배분과 실전문제풀이 테크닉을 습득하는 과정

**개강 9월 3일 (주,야)**  
www.gjserom.com

- 전국 합격을 1위 학원! 전국 25개 체인 학원!
- 서울생활정보고시학원 광주총점 5년(최고 합격자 배출)
- 저자 직강!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공인중개사전문! 전국합격을 1위!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본원 361-8111  
▶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새로운 공인중개사전문학원** 본원 529-8111  
▶ 계림동 구시청사거리 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2008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유치원·초등교사-11월 18일시행, 중등교사-12월 2일) 시행예정

관심있는 공부는 **나비일** 뿐입니다.

# 국내영교육학 문제풀이특강

개설 강좌

- 국내영교육학** 내용인용문제풀이만 개강 9월 1일(토)
- 초등교육위재권선생** 종합문제풀이만 개강 9월 12일(토)
- 전공수학임대성선생** 기본문제풀이만 개강 9월 4일(토)
-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
- 임미선 유아교육** 심화문제풀이만 개강 9월 13일(토)
- 최현철 전공국어** 문제풀이만 개강 9월 11일(토)
- 김지훈 전공생물·정영민 전공물리** 김성희 전공미술·김영수 전공인사위
- 개강 9월 첫째주 해당요일**

단체 10명 이상 수강등록시 할인혜택 (\*진강과 마감유예(현재 정화리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강의 **에듀넷** www.edunet.net

**국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062)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